

<2017년 3월 16일 새벽말씀> 생명의 날

땅에는 평화, 하늘에는 영광

월명동아,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

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

본 문 누가복음 2장 14절

『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,
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』

마태복음 2장 6절

『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
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』

◆ 할렐루야!

우리가 사랑하고 영원히 같이 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
<새벽>부터 ‘역사를 시작’ 하셨으니,
우리도 <새벽>부터 ‘삼위와 함께 실천’ 합니다!

월명동 현장에 오신 분들은 새벽이라 춥지만,
<휴거에 대한 감사와 기쁨>으로 와서 함께하고 있습니다.

◆ 하나님이 보낸 선생도 ‘새벽 4시경’에 태어났습니다.

<구원자가 태어난 생명의 날>, <역사적인 3.16 휴거 잔치의 날>,
구원자를 보내 주신 성삼위께 감사와 사랑의 영광을 돌리며

사랑하는 하나님과 성령과 주와 함께 실천하면서
<더 차원 높은 휴거의 육과 영>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축원합니다.

- ◆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뜻에 따라 같이 행해야
그 행함이 이 땅에 <평화>가 되고, 하나님께는 <영광>이 됩니다.

<말씀 시작>

- ◆ **하나님이 이 땅에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시면,**
기다리는 자들이 희망한 대로 **<평화의 역사>**가 시작됩니다.

그러므로 그들이 **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에게 영광을 돌리니,**
하나님이 바라시던 **<영광의 역사>**가 일어납니다.

고로 예수님 때같이 ‘**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**’에게
<땅에는 평화, 하늘에는 영광의 새 역사>가 일어납니다.

그러나 ‘**모르는 자들**’에게는 **불행**과 **다툼**과 **전쟁**이 일어났습니다.

- ◆ **<평화>**는 ‘하나님이 보내 주신 메시아’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.

그의 말씀을 듣고 서로 평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
한 사람, 한 사람에게 ‘**평화의 불**’이 뜨겁게 일어납니다.

그 불이 ‘**개인·가정·민족 단위**’로 일어나
<평화의 역사>가 일어납니다.

- ◆ **<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에게 돌리는 영광>**도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.

주를 맞고 ‘**하나님의 목적**’을 깨닫고,
개인·가정·민족 단위로 주를 따라 행해야

<영광의 역사>가 일어납니다.

- ◆ 우리가 주를 맞고 뜻을 따라 살면서도,
그리고 주를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도 가만히 있으면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‘영광’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

선물을 받았으면 선물을 준 자에게 감사하듯,
<기다리고 원하던 최고의 희망, 주>를 맞았으니
그를 보내신 삼위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.

감사 영광, 사랑 영광, 예술 영광 등
성삼위께 100%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. (아멘.)

오늘 ‘삼위께 영광 돌릴 준비’ 많이 해 왔습니까?

지금 이 시간도 ‘삼위께 영광 돌리는 것’입니다.

삼위일체는 ‘주를 맞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자들’을
정말 예뻐해 주시고 귀여워해 주시며 그리도 좋아하십니다.

- ◆ 주를 맞은 기쁨에 성령의 감동으로 행하며,
노래도 부르고, 춤도 추고, 감사도 하고,
말씀도 전해 주고, 생명 관리도 해 주고,
서로 뭉쳐서 예술과 운동으로도 복음을 전하고,
각종으로 실천함으로 성삼위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.
- ◆ 사탄과 무지해서 모르는 자들은
<하나님이 시대에 보낸 구원자를 통해 하시는 새 역사>를 막습니다.
반대하고 불신합니다.

우리는 ‘사탄의 행위’를 깨닫고 알았으니,
<주와 일체 된 생각과 행실>로
행악자들을 물리치고 사탄을 멸해야 됩니다.

그리고 <시대 진리의 말씀>을 전하여
많은 자들이 돌아오게 하는 <평화의 역사>를
날마다 일으켜야 됩니다.

- ◆ 지난날 모두 하늘 신부로서 주를 따라 이같이 해 왔기에
<하나님의 창조 목적 사랑의 역사, 휴거>를 이뤘습니다.

지금은 결혼하고 같이 살듯,
<휴거되어 삼위와 사랑하며 같이 사는 때>입니다.

오늘은 ‘휴거 잔치 세 번째’입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 2000년 동안
믿는 자들은 성경을 바탕으로 하여
“제림주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.
백마를 타고 온다. 본 대로 온다.” 했습니다.

- ◆ 구름 타고 온다고 했는데, (마 24:30)
여기서 <하늘 구름>은 ‘비유’로 한 말씀입니다.

<구름>은 ‘사람’입니다.

이 말씀과 같이
<하늘의 성자>도 ‘땅에 보낸 자의 육신’을 쓰고 오셨고,

성자와 함께 하나님과 성령님이 오셨습니다.

- ◆ 백마 타고 온다고 했는데, <백마>도 ‘비유’입니다. (계 19:11)

신약시대 때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니
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생겼고,
예수님은 <자신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자들>을 ‘백마’로 삼고
그들을 타고 나타나 행하셨습니다. 재림 때도 그러합니다.

- ◆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는데, (행 1:11)

예수님이 땅에서 태어나서 배우고 크면서 복음을 가지고 오셨듯이,
하나님이 이 시대에 다시 보내는 구원자도 그러하다는 말씀입니다.

- ◆ 예수님은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왔습니다.

『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
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
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』 라고 예언된 대로

하나님은 <구약에 예언된 말씀>을 이루시려고
작디작은 ‘베들레헴’에서 한 사람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.

그는 ‘예수님’이었습니다.

하나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어 <목자>가 되게 하시고,
<신약의 새 역사>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.

예수님을 통해 ‘구약의 예언’을 이루셨습니다.

- ◆ 이와 같이 이 시대도
<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>과

〈예수님을 통해 하신 성경말씀〉을 이루시려고
지구 세상에서 작은 나라를 택하시고,
그중에서도 ‘작고 작은 마을, 월명동’ 에서
한 사람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.

- ◆ 〈땅에 평화, 하늘에 영광을 돌리는 역사〉를 시작하시려고
성경말씀대로 아무도 모르게
〈이 작은 곳〉에서 ‘한 생명’ 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.

〈땅의 구원〉과 〈하나님의 창조 목적〉을 위해
이때 ‘삼위 중의 한 분이신 절대신 성자’ 가 다시 오시어
〈그의 육신〉을 쓰고 역사를 시작하며 그를 키우고 가르치셨습니다.

- ◆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**역사**하시고
진리의 말씀을 주며 **감동**을 주니,
많은 자들이 깨닫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.

결국 ‘한국 전체’ 에 복음이 퍼져 나갔고,
이어서 ‘세계 각 나라’ 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.

- ◆ 올해가 섭리역사를 시작한 지 39년째입니다.
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뜻을 이룬 지 3년째에 접어들습니다.
하나님은 ‘때’ 를 따라 어김없이 행하셨습니다.

- ◆ 이단은 ‘역사’ 도 ‘때’ 도 전혀 안 맞습니다.
결국 보낸 자가 하나님께 고하여 거짓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.
그들은 말이 안 맞으니, 바벨탑 무너지듯 무너집니다.

- ◆ 내년 **2018년**은 섭리역사를 시작한 지 40년째 되는 해입니다.

섭리역사 40년째는

하나님과 성령께서 ‘보낸 자의 육신’ 을 쓰고
더욱더 역사를 드러내며 행하십니다.

- ◆ <시대 구원자>는 세상 죄를 대신하고,
환난을 날개로 삼아 삼위와 함께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
더욱 차원 높은 휴거 역사를 펴면서
시대 성약 복음을 전한 지 40년 만에
기다린 자들에게 다시 나타납니다. 할렐루야!

고로 “주의 길을 예비하며 실천해라!” 하고 말씀했습니다.

- ◆ 무엇을 실천하냐고요?

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통해 ‘실천할 것들’ 을 말씀하시고,
성령으로 ‘실천할 것들’ 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.

고로 <때>를 따라 ‘실천할 것들’ 이 나타납니다.

고로 생각과 행실을 주와 일체 시켜
<실천할 것들>을 빨리 확인하고 ‘빛같이 실천’ 해야 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
지구 세상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넓은 곳들을 두고
작은 나라 한국, 그것도 최고 작고도 좁은 월명동을
<이 시대 에덴동산>으로 자리 잡게 하시고,
보낸 자의 선조 때부터 이곳으로 옮기게 하시고,

<창조 목적의 뜻>을 두고 은밀히 행하셨습니다.

- ◆ 결국 이곳에서 ‘시대 보낸 자’가 태어나게 하시고,
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‘최고의 구상’을 주시어
<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성전>을 우리와 함께 건축하셨습니다!

- ◆ 월명동에는 많은 작품들이 있지요?

이번에 선생이 또 하나님께 구상을 받고,
범석 목사를 시켜서 섭리인들과 함께
월명동 자연성전에 ‘**또 하나의 걸작, 3.16 작품**’을 만들었습니다.

<올해 3.16 행사>를 맞춰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.

이미 본 사람들도 있겠지만, 모두 날이 새면 봐요.
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합니다.

- ◆ 이 작품을 만든 자리는
예전부터 하나님이 ‘폭포수’를 만들겠다고 구상하신
아~~주 ‘명당 지역’입니다.

최고 지역이고, 기가 막히는 위치입니다.
이곳에 ‘하나님의 구상’대로 작품을 만들게 하셨습니다.

- ◆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섭리 신부들을 사랑하시어
그곳 폭포수 밑에 ‘수영장’도 만들어 주셨습니다.

불 때마다 항상~ 하나님이 구상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,
삼위가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고 감탄하며 보고 쓰라고 하셨습니다.

- ◆ 사람의 구상과 설계대로 만드는 것도 힘든데,
〈하나님의 구상〉을 실천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?

그 구상을 받아서 행한 범석 목사나 성지 사역자들이
얼마나 애간장을 태우고 몸부림을 치면서 했는지 모릅니다.

범석 목사는 이를 악물고 해서 윗니와 아랫니가 흔들리고
매일 그렇게도 아팠다고 했습니다.

- ◆ 한국, 일본, 대만과 그 외의 각 나라 수고한 사람들 모두
춡고 덥고 위험한데, 몸부림치며 걸작을 만드느라 수고했습니다.

정말 잘했습니다!

사역하는 자들을 위해 후원해 주고, 먹을 것도 갖다 주고,
각종으로 지원한 자들도 정~말 보람 있을 것입니다.

- ◆ 이외에도 〈올해 3.16〉을 맞춰서
하나님께서 섭리사 신부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.

앞으로 때가 되면, 한국과 세계 각 나라를 다니면서 보게 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◎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.

- ◆ 1945년 3월 16일 새벽 4시경
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낸 자가 탄생했습니다.

그와 함께 ‘전능하신 하늘의 성자’가 다시 오셨습니다.

그때 한국은 <일본 강점기>로
40년 동안 일본의 통치 아래 있었는데,
그 해 8월 15일에 해방되었습니다.

그때 <제2차 세계대전>도 종식되었습니다.

하나님이 보낸 자가 태어난 해에
<민족적·세계적 평화의 역사>가 일어났습니다.

이것이 <이 시대 역사의 첫 번째 표적>입니다.

- ◆ 또한 하나님이 보낸 자가 태어난 해, 1945년 10월 24일에
<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기구인 ‘국제연합=UN’>이 창설되었습니다.

그때부터 전 세계가 점점 더 ‘전쟁 없는 세계’로 바뀌었습니다.

- ◆ 이와 같이 ‘하나님이 보낸 자’가 오면,
<이 땅에 평화의 역사>가 일어나고
그로 인해 <하늘에는 영광의 역사>가 일어나지만,
<평화>도 <영광>도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.

사람들이 주를 맞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,
그와 같이 성삼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
성삼위께 감사하며 영광 돌려야
나무에 불을 피워 불꽃이 일어나듯
<땅에는 평화, 하늘에는 영광의 역사>가 일어납니다.

- ◆ 지금도 ‘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낸 구원자’로 말미암아
<육적, 영적인 평화의 역사와 영광의 역사>가 일어나고 있습니다.

그렇지 않았다면 <평화>도 <영광>도 깨졌을 것입니다.

- ◆ 주를 반갑게 맞지 않으면 <평화>는 사라지고 냉랭해집니다.
그로 인해 <삼위계도 영광>이 되지 않습니다.

<주를 맞고 휴거된 섭리인들>이

더욱 주를 따라, 뜻을 따라 삼위를 사랑함으로

사랑과 평화와 영광의 삶을 살면서

신부로서 사랑의 사명을 다해야 되겠습니다!

◎ 말씀 마쳤습니다.